버스 준공영제 '세금먹는 하마' 되나

제주도, 첫 추경예산 5조3395억 편성 도의회 제출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추가비용만 463억

제주도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중교통혁신 관련 사업 지원비로 463억원을 편성해 현행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당초예산보다 3098억원 증가한 5조339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1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영버스 재정지원, 버스 및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교통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비로 46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올해 지원 예산은 99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세부예산 내역을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당초 475억원에서 865억원으로 39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도 43억원에서 97억원으로 54억원을 증액했다. 공영버스 재정지원(공영버스특계)도 158억원에서 175억원으로 17억원이나 늘어났다.

내년에 버스업계 종사자 인건비 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도민 혈세 부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주요사업 유형별 투자내역을 보면 정부 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23억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등(92억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생활쓰레기 대책(76억원) 등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을 반영했다.

공무직 전환 및 단체협약 인건비(57억원),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272억원), 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사업(263억원)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조정했다.

또한 계획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 242억원을 삭감해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에 재투자했다.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재원(2106억원)은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927억원, 세외수입 256억원,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1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96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하반기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 반영에 중점을 뒀고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반영을 억제해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도민만 피해"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탈락"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면서 지가 상승으로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좌남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18일 속개된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주도민들의 기초연금 수급 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좌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이주민이 증가하고 중국자본과 투기자본 등으로 인해 제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던 서민들은 주거안정 위협과 기초연금 탈락 등 생계위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이어 "특히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이 소득수준보다는 거주지역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도민들의 주거안정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좌 의원이 공개한 기초연금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65.88%, 제주 62.5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신규 신청자 탈락율은 전국 평균 29.59%에 불과하지만 제주도는 43.35%에 달해 10명 중 4명 이상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 의원은 "한경면 지역 길가에 500평 밭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했다. 500평 있으면 월 30만원이 나오느냐"며 "세금만 엄청 걷지 말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중소도시 기준인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며 "그러나 공시지가를 높이고 있는 국토부의 방침 때문에 제주에만 다르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3차 항공방제 19~23일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3차 항공방제가 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지역 해송림 1000ha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헬기는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소속으로 기종은 까므프(KA-32T) 대형이며 1회 비행 시 60ha(2000ℓ)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다.

또 한라산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어승생 제2수원지 부근 소나무림 60ha의 경우 소형 무인헬기를 이용해 7~8월 3회에 걸쳐 방제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방제가 이뤄지는 오전 5시~11시 등산 및 산책을 자제하고 방제 기간 양봉농가의 방봉 및 축산농가의 방목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해원기자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의원 늘고 조직은 확대… "처우 개선 시급"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제주도의원들 대책 요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여권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발급된 여권은 총 3만1046건(도 2만4429건·서귀포 6617건)으로 2016년 동기 2만5514건 대비 5532건이 증가(21.7%)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만2270건에 비해 1224건 감소(3.38%)한 것이다.

지난해 전국 여권발급 신청 증가는 2008년 8월 전자여권이 도입된 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재발급 건수가 급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도민의 여권발급 신청은 예년과 비슷하게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의원 정수가 확대되고 초선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새 단장한 제11대 제주도의회에서 의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의원들은 의원이 늘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비좁아진 청사 문제와 함께 입법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현재 제주도와 도의회는 기관대립형이어서 의사당에 국회와 같은 좌석 배치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처장이 부의장석에 앉아 있는 꼴"이라며 "입법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입법 기능을 앞에 두고 의회 사무는 후순위로 두는 국회 조직 체계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성균 의원(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본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도민들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내는 곳"이라며 "그러나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 특히 사무관이 한 명도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고태순 의원(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은 "11대 개원 후 의원 정원이 종전 41명에서 43명으로 늘고, 앞으로 의회 사무처 조직과 인력도 많이 늘면 사무공간도 확대돼야 한다"며 "노형동으로 이전이 확정된 제주지방경찰청 건물에 현 소방안전본부가 이전하면 의회 건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또 "제주도청 주차요금제로 인해 도청 민원인들까지 의회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져 의원들조차 주차공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 43명 중 여성의원이 8명이고, 의회 150명 직원 중 48.7%인 73명이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의회 공간도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보면 향후 의원연구모임을 지원하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정책적 대안을 많이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원연구모임 지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오등동 야외공연장 원점서 재검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 "사유지 예산 추가 소요 우려 커"

문경복 국장 "난개발 우려 추진 계획 재검토 할 것"

토지매입비와 건립 소요 예산만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시 오등동 야외공연장 추진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문경복 제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오등동 야외공연장 추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이날 "오등동 야외공연장 예정 부지는 사유지인데 매입이 완료됐느냐. 협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며 "협의가 지지부진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해 사업 용역을 완료했지만 올해 2월에야 결과를 발표했다. 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상설 공연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해당 부지가 절대보전지역 안에 있어 일반인들은 건축허가를 받기도 어려운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경복 국장은 "제대로 된 공연장과 랜드마크를 건립하기 위해 국비를 절충하는 과정에 가시적인 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난개발을 방지하자는)본회의 의장 말씀도 있고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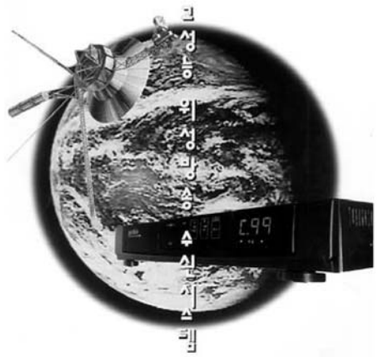
이승아 의원(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현재 입장료와 탐방객만 고려해 추진 중인 한라산 탐방객 수용방안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너무 단순한 용역"이라며 "제주도가 최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환경보전기여금과 결부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부서별로 나눠 용역을 진행하면 용역비만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도청 조직이 서로 관리하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 업무에서 대해서만 진행한다.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용역 결과를 무조건 적용하고, 탐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17-20-02호
감귤묘목
장마철 식재
성 전 3년생
황 금 향 3,4년생
감 평(레드향) 4년생
천 혜 향 3,4년생
유 라(극조생) 4년생
일남1호(극조생) 5년생
한 라 봉 3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3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유라실생 1년생
• 윈터프린스 1년생
• 남진해(나스미) 1년생
• 한라봉(마나베데고) 4년생
• 일남1호, 히로시마7호(극조생) 4년생
• 블러드 오렌지 (다로코) 기능성 밀감 4년생
• 천전(가와다) 온주 천지향 5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종은 직접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서귀종묘
010-6677-5753